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 영역 분석과 가창지도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진남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 영역 분석과 가창지도 활성화 방안

An Analytic Research on Singing Area in Music
Textbook of Middle School and Activation Plan for
Singing Instruction

2016 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진 남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 영역 분석과 가창지도 활성화 방안

지도교수 이 한 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진 남

김진남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인

2015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범위	3
4. 선행연구의 고찰	4
II. 이론적 배경	7
1. 바른 자세	7
2. 호흡	9
3. 발성	11
4. 정확한 발음	15
5. 변성기의 특성	18
III. 중학교 음악 교과서 가창 내용 분석	20
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과 영역	20
2. 중학교 음악 교과서 가창 내용 분석	21
3. 음악 교과서 분석 결과	32

IV. 음악교사와 전문 성악가들의 심층 면담 분석	35
1. 심층 면담 대상	35
2. 심층 면담 질문지	37
3. 심층 면담 방법	39
4. 심층 면담 결과	39
V. 결론 및 제언	52
참 고 문 헌	56

표 목 차

<표 1>	21
<표 2>	23
<표 3>	35
<표 4>	37
<표 5>	38
<표 6>	39
<표 7>	40
<표 8>	42
<표 9>	45
<표 10>	45

그림 목 차

[그림 1]	8
[그림 2]	9
[그림 3]	10
[그림 4]	12
[그림 5]	16
[그림 6]	16
[그림 7]	17
[그림 8]	17
[그림 9]	17
[그림 10]	25
[그림 11]	27
[그림 12]	28
[그림 13]	29

악보목차

[악보 1]	14
[악보 2]	14
[악보 3]	14
[악보 4]	15
[악보 5]	15
[악보 6]	15
[악보 7]	30
[악보 8]	30
[악보 9]	30
[악보 10]	31
[악보 11]	48
[악보 12]	48
[악보 13]	49
[악보 14]	49
[악보 15]	49
[악보 16]	49
[악보 17]	49
[악보 18]	50
[악보 19]	50

ABSTRACT

An Analytic Research on Singing Area in Music Textbook of Middle School and Activation Plan for Singing Instruction

Kim, Jin Nam

Advisor : Prof. Lee, Han-Na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18 2009 revised music textbooks of middle school focusing on vocal area to activate sing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lso, in-depth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9 music teachers of middle school and 10 professional vocalists based on the analyzed singing instruction element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singing instruction. Also,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of vocal area suggested in textbook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singing instruction of teachers.

To this end, 6 categories among main contents included in textbooks as correct posture, breathing, correct pronunciation, vocalization, break of voice, and diaphragm were investigated through professional vocalization literature. Also,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vocalization contents and improvement point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extbooks.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include effective explanation through illustration of standing and seated posture because correct posture is the most basic element that needs to be conducted prior to breathing and vocalization.

Second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breathing is not thoracic respiration but abdominal breathing using diaphragm that containing the location of diaphragm and its action during breathing into illustration to explain the contents would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ncept easier.

Thirdly, for correct pronunci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explain the location of pronunciation by including illustrations of mouth shape of ‘aeiou’ and location of tongue, and additional explanation on how to pronounce correctly by pronouncing consonants shortly but pronouncing vowels as long as possible would be necessary.

Fourthly, vocalization would need to be explained with an illustration of vocal organs to raise understanding and including 2~3 basic vocalization etudes and do vocal exercises before singing musical pieces would be effective in vocalization instruction.

Fifthly, teachers would be able to conduct more proper instruction when students understand their changed voices by including explanations on the period of voice change in textbook.

Sixthly, the use of correct diaphragm terms in textbooks needs to be reestablished.

The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questionnaire on 9 music teachers around 6 categorie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singing instruction in school and to prepare improvement point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struction on correct standing and seated posture need to be conducted because correct posture is the basic element for concentration level and positive attitude of students.

Secondly, comfortable and relaxed breathing without tension is important that instruction on abdominal breathing through diaphragm, not thoracic respiration, needs to be conducted on students. Simple stretching for

relieving tension or training exercise for abdominal muscles would be also effective in instruction.

Thirdly, correct pronunciation needs to be instructed for students to know the mouth shape and location of tongue to sing as if talking by connecting vowels and consonants. Reciting lyrics would be effective for correct pronunciation because it is helpful in expressing the lyrics.

Fourthly, teachers are instructing pronunciation in various ways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instructing the head-voice vocalization in many ways.

Research on vocalization methods for easier and more interesting ways to learn vocalization would be needed by teachers.

Fifthly, proper vocal training in comfortable range without stressing their neck is essential for students in the period of voice change. Also, wide range of music appreciation for emotional development needs to be conducted at an impressionable age.

Sixthly, only 67% of teachers knew the correct term of diaphragm. Correct terminology of diaphragm needs to be reestablish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oints of vocal instruction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on professional vocalists.

First, professional vocalists pointed correct posture as an element that needs to be conducted at first. They stated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ctive posture in comfortable condition.

Secondly, they stated that instructing students to understand comfortable breathing of muscular function during breathing in person is necessary.

Thirdly, they said that having correct understanding on the location of chin and tongue and practicing correct pronunciation after seeing demonstration by teachers is effective.

Fourthly, they stated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proper vocalization method because there are various vocal instruction methods, and for the head-voice-vocalization, they said that students can hear and imitate the sound of teachers and learn slowly because it requires time.

Fifthly,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vocal instruction that considers vocal range without stressing the vocal cords.

Therefore,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include actual explanation of illustrations that took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students in consideration in explaining vocal elements.

Secondly, vocal capability of teachers need to be strengthened for vocal instruction. Opportunity for professional training needs to be expanded through vocal music lesson of professional vocalists, vocal seminar for teachers, students, and vocalists, and programs as vocal training.

Thirdly, it would be possible to motivate students about singing through wide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through professional instruction by prepar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learn from professional vocalists.

Key words: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vocal area, vocal instruction, vocalization, breathing, break of voice, diaphrag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의 미적 경험을 통하여 개성 있고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심미적 능력과 능동적 사고를 개발하여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이누리, 2008, p. 11 재인용).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영역 중에서 가창은 가장 기본적으로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활동으로 특별한 기능이 없더라도 사람의 목소리와 가사를 통해 느낌이 쉽게 전달된다. 또한 가창은 감성적 표현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다른 영역보다 음악 수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영화, 2011, p. 5). 독일의 음악 사회학자 아도르노는 “가창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의 하나이며, 인간 실존의 하나이며, 자기 발견의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함희주, 1994, p. 276 재인용). 이와 같이 가창은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악활동이다.

김향정(2006)은 한국적 음악 교육의 상황에서 가창 위주의 수업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경희(1993)도 가창 중심 학습이 많아서 중학교 음악과 수업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이 수업의 핵심을 실기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¹⁾ 이처럼 가창 수업은 음악 수업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들은 부족한 시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창의성과 개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김선미, 2013, p. 3). 왜냐하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과 예술 과목 축소에 따른 학교 운

1) 성경희(1993)는 교사들의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현장 교사들의 가창 중심 수업(132명)이 기악 중심 수업(130명) 보다 더 많았으므로 가창 중심 수업의 방법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으로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음악수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가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가창의 중요 요소인 발성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교사들은 변성기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예려, 2009, p. 4). 그리고 변성기의 가창 교수 방법의 이론들이 다양하여 교사들이 나름대로 지도방안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선미, 2001, p. 10).

음악 교과서는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의 목적달성을 위한 교수·학습의 중심 자료로써 음악 교육과정의 다양한 영역이 수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과서에 선정, 수록된 내용들은 학교 음악교육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안정현, 현경실, 2014, p. 101 재인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2009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 가창 영역을 분석하여 교과서 수록 내용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가창지도 실태와 전문 성악가들의 가창지도 방법을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가창지도 활성화 방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 영역의 수록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현장 음악교사의 교과서의 가창 내용 활용은 어떠한가? 그리고 가창지도 방법은 어떠한가?

셋째, 전문 성악가들의 가창지도 방법은 어떠한가?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가창 영역의 수록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학교 현장 음악교사의 지도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 성악가들의 지도 방법을 알아보아 중학교의 가창지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현행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의 가창 관련 수록내용을 모두 조사하여 분

류한다. 그리고 가창의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교과서의 가창 요소를 중심으로 전문 문헌의 수록 내용을 고찰하였다.

셋째, 중학교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창지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넷째, 전문 성악가들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교과서의 가창 요소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섯째, 분석된 교과서의 가창 요소와 현장에서 지도하는 음악교사들과 전문 성악가들의 가창지도 방법을 살펴본 후, 이를 가창 요소별로 분류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교사 집단과 전문 성악가들의 가창지도 내용은 다양한 응답이 가능한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지법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항목은 구체적인 빈도수로 나타내었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표현 영역 중 가창 영역을 중심으로 가창지도 요소에 대한 수록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음악교사들과 전문 성악가들의 가창지도 방법을 알아보하고자 하여 교과서 분석과 심층 면담 그리고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중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가창지도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중학교 교과서 18종의 분석은 가창 영역만을 범위로 연구하고, 음악 교사 면담은 G시와 J지역의 중학교 교사 9명과 전문 성악가 10명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에서 나타나는 가창 지도를 위한 방안이 전체 가창 표현 지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선행연구의 고찰

중학교 음악 교과서 가창 연구와 가창지도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최명희(2002)는 중학교 가창지도의 효율적 방안 연구를 주제로 중학생들의 가창 지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수업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효율적인 가창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유익하고 즐거운 가창 수업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을 통한 설문과 수록된 악곡 10곡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효과적인 가창 지도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양수(2004)는 중학교 가창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변성기 학생들의 가창지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학교 가창 수업이 변성기 학생들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교육적 효과를 내지 못함을 인식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흥미를 잃어 가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가창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성기의 지도 방법과 표준적인 지도 이론을 제시하였다.

방주량(2004)은 중학교 가창지도 실태에서 변성기를 중심으로 한 주제로 변성기의 중학생들의 실제적인 가창지도 방법을 연구하였다. 가창의 기본 요소인 자세, 호흡, 발성, 공명을 고찰하고 중학교 음악교과서 9종의 변성기의 수록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신감과 창의적인 표현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가창의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김예려(2009)는 중학교 학생들의 가창 발성지도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변성기 학생을 중심으로 변성기 학생들의 효과적인 가창 발성수업을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가창지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성기 학생들에게 적합한 가창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지연(2013)은 협동학습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 가창지도 방안 연구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음악수업에서 흥미와 동기를 잃어가는 학

생들에게 협동학습을 통한 활동중심의 음악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과 여러 가지 교육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의 대안으로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나타내고 있었다.

윤혜정(1995)은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8종) 분석을 가창학습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가창 학습 영역을 분석하여 제 6차 교육 과정의 목표와 개정 방향에 대한 개편 교과서의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교육 과정 개편에 따른 가창 교육의 변천을 알아보고 8종 개정 교과서의 악곡을 필수 악곡과 선택 악곡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개정 교과서의 가창 영역이 6차 교육 과정의 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미적인 음악교육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조적인 교과서의 틀에 더 충실하다고 나타내고 있었다.

한정희(2010)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곡 편성의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하여 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설문을 통한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의 가창 선호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가창곡 편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박주은(2011)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분석을 ‘노래 부르기’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교과서의 적합성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체계를 마련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며 실질적인 음악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6종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한쪽에 편중된 악곡 편성과 발성법의 형식적인 수록으로 체계적인 발성법의 수록을 제시하였다.

김영화(2011)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가창 영역 분석 연구를 중학교 2학년 중심으로 비교·정리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 8종의 가창 영역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중점내용이 교과서에 잘 반영되었는지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악곡의 성격별로 제재곡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오선주(2011)는 중학교 가창 중심 수업모형 연구를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음악적 능력과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창 중심 수업 모형을 연구하였다. 2007 음악 교과서의 4곡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여 실제적인 가창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교과서 모형, 학습자료 모형, 평가항목 구안, 학습지 구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음악 교과서의 분석과 가창지도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2009 음악 교과서 중 가창 영역 분석과 교수자인 음악 교사와 전문 성악가들의 가창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 개정 음악 교과서 18종의 가창 부분을 분석하고, 교사들의 가창 지도의 실태와 전문 성악가들의 지도 방법을 파악하여 중학교에서의 가창지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가창 영역의 일반적인 지도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전문 발성 문헌을 탐색하여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 지도 요소 즉, 바른 자세, 호흡, 발성, 정확한 발음 등을 변성기의 특성과 함께 살펴보았다.

1. 바른 자세

바른 자세는 발성과 호흡의 바탕이 되는 가창의 기본 요소이다. 김혜정(2001)은 올바른 자세는 호흡과 발성을 가능하게 하는 꼭 필요한 선행조건이라고 말한다.

“바른 자세는 성대의 위치를 바로 잡아 줄 뿐 아니라 숨을 쉴 때 그 호흡이 바르게 들어가는 역할을 도와주므로 발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p. 48).

문영일(2000)은 발성의 제일보는 호흡법이며, 호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세임을 강조한다.

“우선 올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언제나 자세를 올바르게 하면 반드시 좋은 가슴을 소유할 수 있다. 가슴이 넓어지면 인후도 넓어지고 턱도 편해져서 구강 안이 넓고 깊어지며, 이에 따라서 아름답고 좋은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올바른 자세가 있음으로써 올바르고 깊은 호흡이 가능해진다. 호흡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발성이 되는 것이다”(p. 96).

리사 로마(1987)는 노래할 때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세는 제일 먼저 신체를 완전히 안정시켜 놓는 일이다. 즉, 양팔의 힘을 빼고 아래로 내려 완전히 긴장을 풀고, 아래턱을 얼굴에서 완전히 유리시켜 긴장을 풀어 놓는 것이다”(p. 16).

김혜정(2001)은 바른 자세를 위한 신체 부위를 머리, 가슴, 어깨, 양 팔, 골반,

양 발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머리는 앞이나 뒤로 젖혀지지 않게 곧바로 세워 등과 일자가 되게 한다.

둘째, 가슴은 활짝 펴서 높이 고정시켜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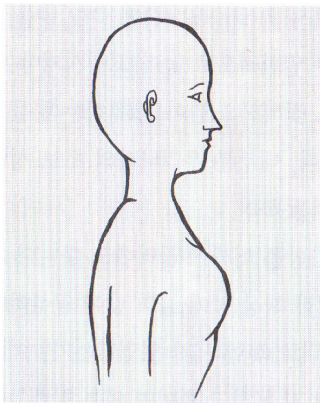
셋째, 어깨는 최대한 힘을 빼고 약간 뒤로 젖혀진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넷째, 양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거릴 수 있도록 한다. 가슴 부분에 손을 올린다거나 양 팔을 잡아 뒷짐을 지는 자세는 노래할 때 좋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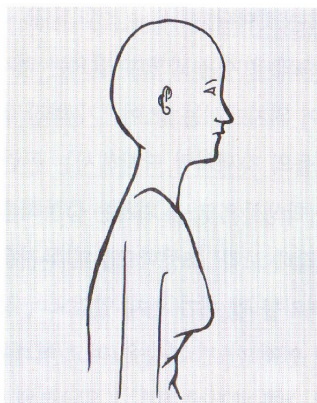
다섯째, 골반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갈비뼈 아래에 매달려 있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양쪽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좁게 벌리고 한쪽 발은 다른 쪽 발보다 조금 앞에 두고 선다. 이때 뒤꿈치 보다는 발가락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서도록 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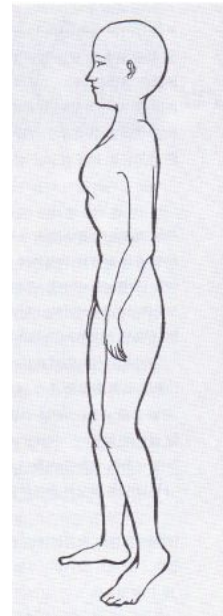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바른 자세를 가질 때 좋은 호흡과 발성이 만들어져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리를 내기 이전에 바른 자세의 지도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른 자세 ○



그른 자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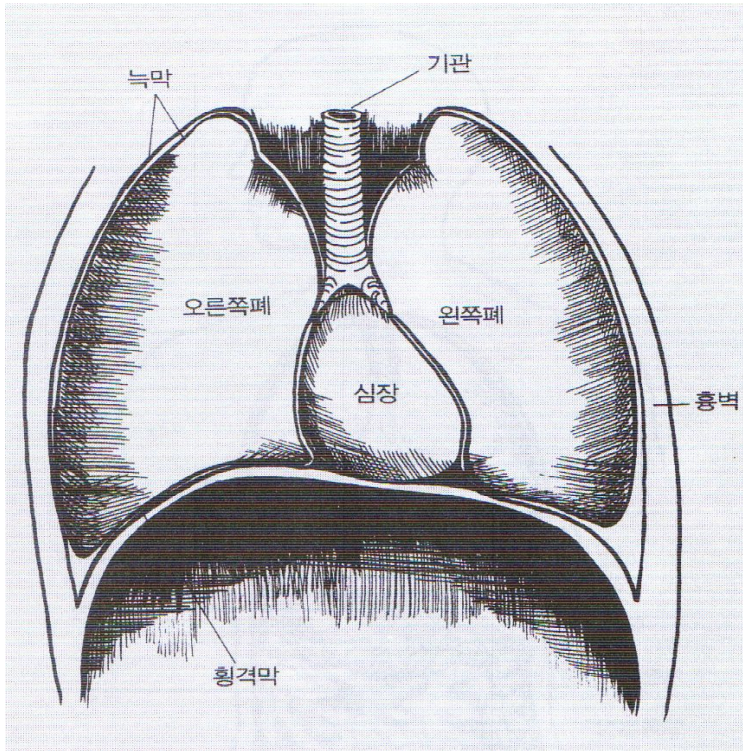


바른 선 자세 ○

[그림 1] 바른 자세와 그른 자세(김혜정, 2001, pp. 52, 54)

2.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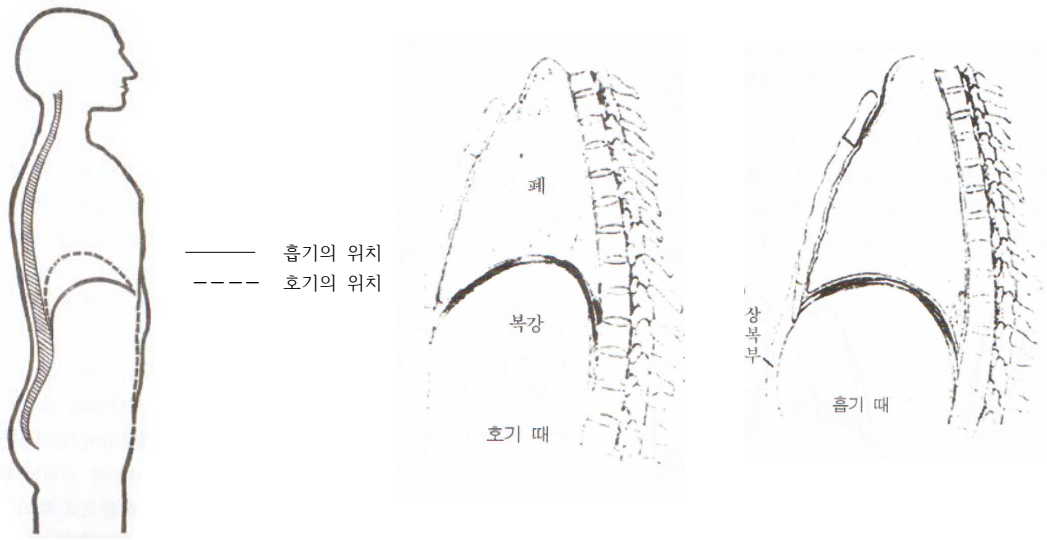
좋은 호흡이란 흉식 호흡이 아닌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말한다. 횡격막은 숨을 쉴 때 가장 중요한 근육으로 밥공기를 얹어 놓은 듯한 모양으로 생겼으며 갈비뼈 뒤에 위치해 있어서 손으로는 만져지지 않는 기관이다. 횡격막 위쪽에는 폐, 심장, 식도 등이 있고 아래쪽에는 간장, 위, 장 등이 위치해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횡격막의 위치(김혜정, 2001, p. 79)

김혜정(2001)은 복식호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횡격막이 수축이 될 때 밑으로 내려가 편평해지면 복강 내의 여러 장기가 전하방으로 눌리어져서 복부가 팽윤되어 앞으로 나오게 되고 숨을 내쉬면(날숨) 다시 횡격막이 원상태로 복원되고(다시 제 위치로 약간 올라간다) 복부의 팽윤도 감퇴되어지는 것이다”(p. 91) (그림 3 참조).



[그림 3] 호기와 흡기 때의 횡격막의 위치(문영일, 2000, p. 31)

전문가들은 좋은 호흡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었다.

첫째, 호흡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신의 긴장을 풀어 놓고 팔의 힘을 빼서 아래로 늘어뜨리고 목구멍이나 목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 놓는 것이다. 가슴은 항상 위를 향해야 하며, 결코 그 자세를 무너뜨리거나 아래로 처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리사 로마, 1987, p. 25).

둘째, 입과 코를 통해서 천천히 고르게 호흡해야 한다. 너무 많은 양의 호흡을 들이마시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다(리차드 놀, 1989, p. 25).

셋째, 좋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하품하듯이 목구멍을 활짝 열어야 한다(황세진, 2008, p. 22).

넷째, 김혜정(2001)은 호흡에 관한 근육의 운동 방향과 신체의 반응을 점차적으로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터득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호흡법을 강조하고 있다. 횡격막의 개념은 용어 자체부터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횡격막의 위치를 설명하고 각자의 몸에서 위치를 알고 느끼게 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숨을 들이쉬고 내 쉴 때 횡격막의 작용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익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p. 77).

다섯째, 횡격막을 중심으로 온 전신으로 하는 몸통 호흡을 강조한다. 흉식 호흡이 아닌, 횡격막에서, 더 나아가서 배 전체에서 전신으로 퍼져서 발끝까지도 공기가 들어가는 기분으로 넓게 깊게 호흡하도록 해야 한다(문영일, 1984, p. 36).

마지막으로, 빨리 걷기, 수영,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의 꾸준한 복근 단련운동은 호흡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호흡을 만들 수 있다(김혜정, 2001, p. 107).

3. 발성

발성이란 폐장 속의 공기를 밖으로 호출할 때 성대의 두 장의 리이드²⁾가 동시에 진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공명음을 총칭하는 것이다(문영일, 1984, p. 16). 문영일(1984)은 발성은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각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각자에게 맞는 발성법은 달라서 정확하게 맞는 발성법이란 없다고 본다. 발성법이란 성악의 기초 훈련으로, 발성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발음 기관을 사용하여 적당히 조절하고 훈련하는 방법이다³⁾.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발성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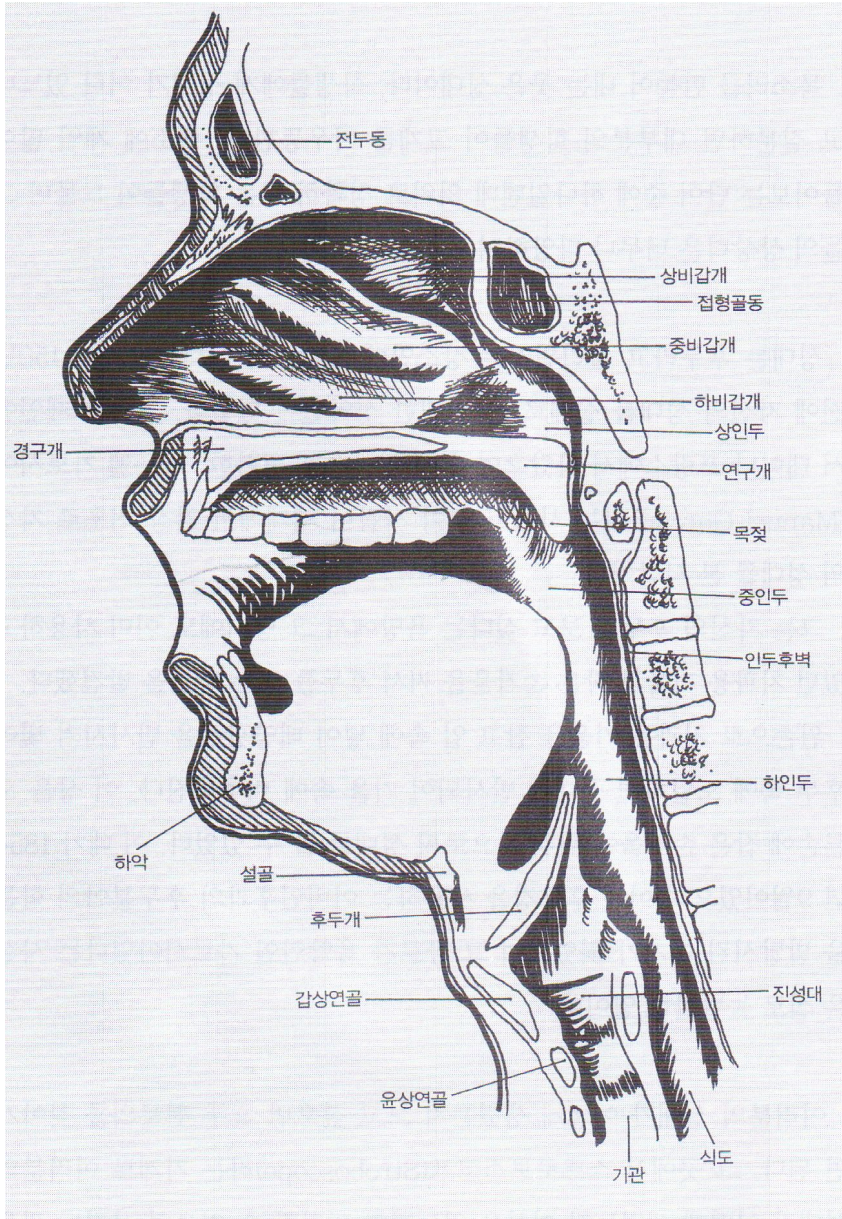
첫째, 먼저 발성 전에 신체를 노래하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가벼운 준비운동 등이 필요하다(문영일, 1984, p. 60).

둘째, 김혜정(2001)은 혀의 위치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혀를 편하게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하품하듯이 또는 웃는 표정을 지어 연구개를 올려준다는 생각이 긴장이 없는 좋은 발성을 만들며, 이때 학생들에게 입 안에 연구개의 위치를 직접 만져보게 하여 알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그림 4 참조).

셋째, 변성기 학생들을 위한 무리 없는 발성으로 다음과 같은 연습법을 추천한다.

2) 성대(vocal cords, 聲帶)의 구조를 표현하는 말로, 후두에 위치하는 발성기관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점막 주름을 말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http://terms.naver.com/>)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1) 문영일(2000)은 ‘하’와 같은 기식음이 섞인 한숨 소리를 내는 것은 올바른 발성으로의 첫 걸음으로 변성기 학생들이 성대에 무리 없이 부드럽게 소리 낼 수 있는 발성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림 4] 연구개의 위치(김혜정, 2001, p. 118)

2) 김혜정(2001)은 하품을 생각하면 성대와 호흡에 관여하는 부분이 긴장이 풀려 자유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편한 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3) 허밍(humming)은 턱이나 혀의 힘을 빼고 좋은 발성을 하면서 공명의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편안한 중간 음으로 허밍을 하면 두개골이 진동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으며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후두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진동 감각을 느낀다(문영일, 2000, p. 220).

넷째, 모방은 발성법의 습득을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그래서 성악전공자들은 훌륭한 가수의 연주를 듣고 따라서 해보고 흉내 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자 교사라면 여학생들에게, 남자 교사라면 남학생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면서 선생님을 흉내 내게 하는 방법으로 많이 배우게 된다(문영일, 2000, p. 145).

다섯째, 발성 연습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다. 처음 시작하는 모음에 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초·중학생들의 발성 연습에는 ‘이’ 모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으로 ‘에-아-오-우’의 순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 이유로 문영일(1984)은 두성 발성의 뚜렷한 특색은 비강의 공명에 의한 두부 공명 전체의 공명 작용인데, 비강 공명을 가장 잘 일으키는 모음이 바로 모음 ‘이’이기 때문이다. 김혜정(2001)은 발음은 먼저 ‘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아’ 발음이 가장 쉽게 턱을 열수 있는 발음이기 때문이다. 발성을 시작하는 음역은 중음부터 시작해서 고음으로 갔다가 다시 중음을 거쳐 저음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좋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을 위한 무리 없는 발성 연습곡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발성 연습곡

리사 로마(1973)는 어떤 일정한 피치(pitch)의 음을 규칙적으로 정확히 부르는 연습을 하면, 목이나 근육 및 발성기관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p. 90).





[악보 1] 기본 발성 연습곡

자음을 붙인 어떤 일정한 피치(pitch)의 음을 동일 리듬으로 규칙적으로 노래 부르는 발성 연습은, 발성기관을 단련하고 완성하기 위한 제일 적절한 방법이라고 한다(리사 로마, 1973, p. 30).



[악보 2] ‘M’ 자음을 붙인 기본 발성 연습곡

2) 소리의 유연성과 레가토를 위한 연습곡

다섯 음에 의한 소리의 유연성과 레가토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곡이다.

(1) 소리를 앞에 쉽게 붙일 수 있는 모음 ‘아’로 점차적으로 상행진행 후 하행 진행하는 연습곡이다(리사 로마, 1973, p. 91).



[악보 3] 레가토를 위한 연습곡

(2) 올바른 공명을 찾을 수 있는 모음 ‘이’로 시작하여 ‘아’로 바꾸어 연결하면서 하행 진행 후 상행하여 다시 하행 진행하는 연습곡이다(리사 로마,

1973, p. 91).



[악보 4] 레가토를 위한 연습곡

3) 호흡을 위한 연습곡

김혜정(2001)은 호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h'를 이용한 연습곡을 추천한다. 스타카토를 이용하여 '하'를 발음하면서 하복부가 경직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호흡을 내보내는 연습곡이다(p. 134).



[악보 5] 호흡을 위한 연습곡

4) 턱의 힘을 빼기 위한 연습곡

허밍(humming)을 이용하여 인후·턱·혀의 힘을 빼고 좋은 발성을 하면서 공명의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연습곡이다(문영일, 2000, p. 227).



[악보 6] 턱의 힘을 빼기 위한 연습곡

4. 정확한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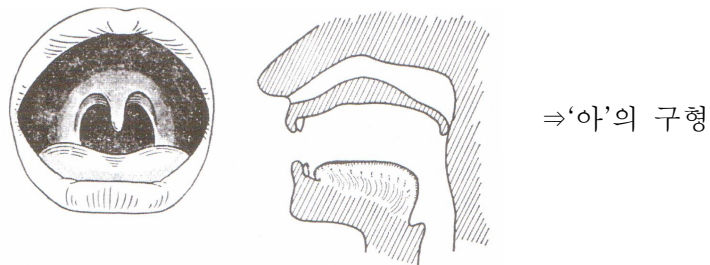
김혜정(2001)은 정확한 발음은 아름다운 선율의 흐름을 위해서 중요하며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할 줄 알면 소리는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한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선 모음과 자음이 발음되는 위치를 익히고 발성을 해야 한다.

모음이란 소리가 날숨에 실려 나올 때 입안에서 통로의 막힘이 없이 나오는 발음인데, 대표적인 발음으로는 ‘아’ ‘에’ ‘이’ ‘오’ ‘우’ 있다. 이들 모음을 발성 할 때 입술과 입안 등의 발음기관과 공명기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호흡의 이루어져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김혜정, 2001, pp. 22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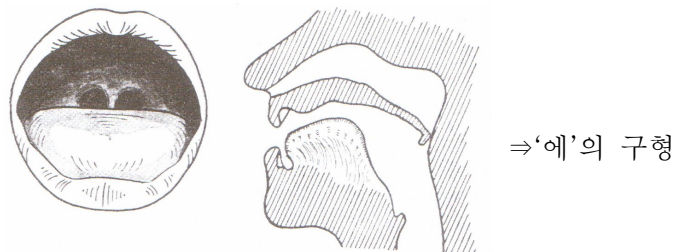
문영일(2000)은 대표적인 모음 ‘아에이오우’의 바른 입모양과 혀의 발음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아’는 발성 모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이다. 혀가 입안에서 가장 낮게 위치하면서 다른 모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 발성해야 한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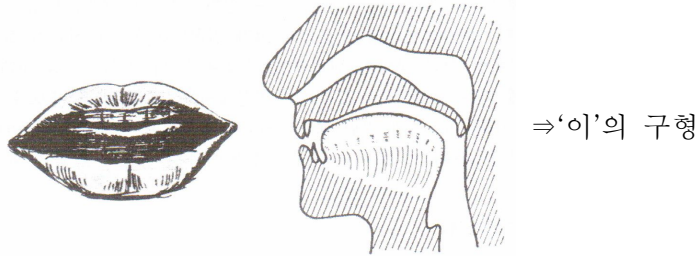
[그림 5] ‘아’의 입술모양과 혀의 위치(문영일, 2000, p. 168)

2) ‘에’ 모음을 발성할 때는 입의 모양을 옆으로 벌려야 하므로 소리의 울림이 납작해지지 않도록 하고 ‘아’와 같은 입안의 모양을 가지고 발성해야 둥근 울림을 가질 수 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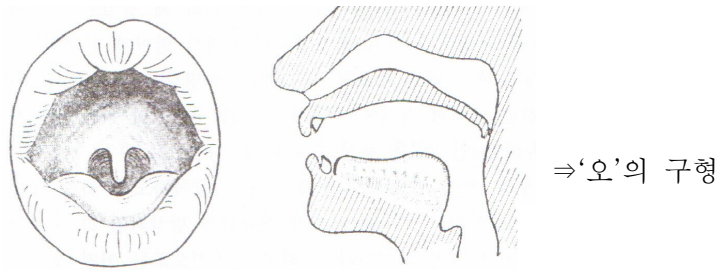
[그림 6] ‘에’의 입술모양과 혀의 위치(문영일, 2000, p. 169)

3) ‘이’ 모음은 ‘에’보다는 입의 크기가 작고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이다. 입술을 옆으로 길게 하는 것보다는 입안의 공간을 넓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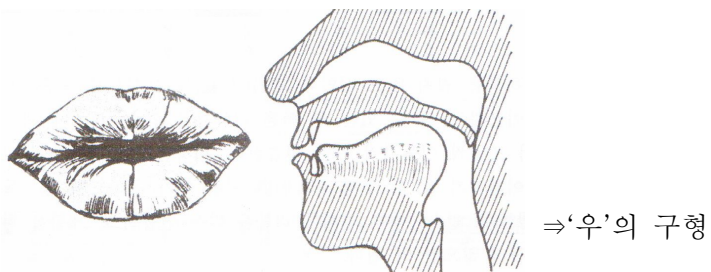
[그림 7] ‘이’의 입술모양과 혀의 위치(문영일, 2000, p. 170)

4) ‘오’는 ‘아’와 비슷하게 발성하되 다른 점은 외관적으로 입술의 모양이 약간 돌출한 듯이 둥글어지며 좌우로부터 약간 조여진다는 점이다(그림 8 참조).



[그림 8] ‘오’의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문영일, 2000, p. 171)

5) ‘우’는 ‘오’의 입모양을 유지하면서 아래턱을 약간 좁게 열면서 입술을 좀 더 오므린다(그림 9 참조).



[그림 9] ‘우’의 입술모양과 혀의 위치(문영일, 2000, p. 171)

자음이란 발성을 할 때 날숨의 흐름이 입 안에서 그 통로가 차단되거나 좁아졌을 때 생기는 성질이 몹시 복잡하고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소음을 말한다. 모음은 규칙적인 진동으로, 자음은 불규칙적인 진동으로 이루어진다(김혜정, 2001, p. 242). 리사 로마(1987)는 자음은 모음의 울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욱 명확하게 똑똑히 발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혀, 턱, 및 입술은 자음발음에 필요한 작용을 하면 즉시로 먼저 위치로 되돌려, 결코 숨의 통로를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숨의 통로는 항상 어떠한 장애로부터도 자유스럽게 열려있어야 한다(p. 67).

또한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혀의 바른 위치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혀의 모양에 따라서 입안의 공간이 변형되며 발음도 달라진다. 혀가 입안 깊숙이 들어가거나 입안의 뒷부분을 막으면, 턱에 심한 긴장이 생기고 후두의 위치도 정상보다 높아져 소리가 납작하고 울림이 없는 소리가 나게 된다. 혀의 끝은 항상 아랫니 뒤에 평평하게 누워져 있어야 한다. 혀는 자음의 발음에 따라서 뒤로 들어가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지만 모음을 노래할 때는 아랫니 뒤에 누워 있어야 한다(김혜정, 2001, pp. 194-195).

5. 변성기의 특성

변성기는 사춘기 시기에 나타나는 성대의 변화이다. 즉,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로서 보통 12세~15세에 나타난다. 이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경에는 여학생의 대부분과 남학생의 약 반수가 변성이라는 목소리의 대혁명을 겪기도 한다. 여학생은 ‘음색’이나 ‘음정의 변화’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다만 목소리가 약간 굵어지는 정도이다. 그러나 남학생은 ‘음색’이나 ‘음정’이 모두 변해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시기에는 성대를 중요하게 관리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음성학자들은 절대 노래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지도할 때 성대에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큰소리나 장시간의 노래를 피해야하며, 특히 변성기 학생들이 느끼는 간

단하면서 편한 음역대로 노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문영일, 1984, p. 155).

III. 중학교 음악 교과서 가창 내용 분석

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과 영역⁴⁾

1)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표현 영역에는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가 포함된다. 감상 영역은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와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이다. 그리고 생활화 영역에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와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가 포함된다.

표현 영역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는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와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표현 영역은 바른 자세와 음악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는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음악과 주제에 맞는 노랫말과 극본을 만들어 음악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2)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과 가창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에서는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목소리, 악기, 신체, 그림 등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국악 학습에서는 전 영

4) 본 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2011) 문서를 토대로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역에서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중학교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가창과 창의적인 신체 표현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노래 부르기에서는 바른 자세와 발성으로 악곡에 따른 자신의 느낌을 개성 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가사와 가락의 관련을 탐색하면서 그에 따른 느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한다. 가락, 시김새, 창법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신체 표현을 중히 여기고 놀이를 통한 학습을 권장한다.

2. 중학교 음악 교과서 가창 내용 분석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가창 내용에 관한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을 분석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른 자세, 둘째, 호흡, 셋째, 정확한 발음, 넷째, 발성, 다섯째, 변성기, 그 이유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공통적인 가창지도 요소를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을 위하여 먼저,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에서의 가창지도 요소 중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 등의 다섯 가지에 주목하여 수록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표 1>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의 가창 영역별 수록 내용 분석

	교과서	수록페이지(수록양)	바른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
1	교학사	11(1)	○	○	×	○	○
2	(주)교학사	10-11(2)	○	○	○	○	×
3	금성출판사	12-13(2)	○	○	×	○	×
4	도서출판태성	36-37(2)	○	○	○	○	×
5	동아출판	16-17(2)	○	○	×	○	○

	교과서	수록페이지(수록양)	바른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
6	미래엔	17(1)	○	○	×	×	×
7	박영사	33-34(2)	○	○	×	○	×
8	비상교육	18-19(2)	○	○	○	×	×
9	성안당	13(1)	×	×	○	○	×
10	세광음악 출판사	12-13(2)	○	○	○	○	×
11	아침나라	13(1)	○	○	×	×	×
12	와이비엠	17(1)	○	○	○	×	○
13	음악과생활	16-17(2)	○	○	×	○	○
14	중앙교육	172-175(4)	○	○	○	×	○
15	지학사	14-15 156-157(4)	○	○	○	○	○
16	천재교과서	15(1)	○	○	×	○	×
17	천재교육	12(1)	○	○	×	×	×
18	현대음악	12-13(2)	○	○	×	○	×
비고	빈도수	평균 1.8쪽	17	17	8	12	6

먼저, 음악 교과서 18종의 가장 영역 내용 수록양의 정도는 평균 1.8쪽으로 나타났다. 바른 자세와 호흡은 18종 중 17종의 교과서가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발성은 18종 중 12종의 교과서가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66%의 비율을 나타냈다. 정확한 발음은 18종 중 8종의 교과서가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44%에 해당했다. 마지막으로, 변성기는 다섯 가지 항목 중 3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음악 교과서 18종 중 6종에서만 변성기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2>는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의 다섯 가지의 요소와 더불어 횡격막의 용어 사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섯 번째 요소로 조사·분석하였다(표 2 참조).

<표 2> 중학교 교과서 18종의 6개 영역별 수록 내용

	교과서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	횡격막의 용어 사용
1	교학	·선그림○	·복식호흡 ·횡격막	×	·‘이에아오우’ 단음 발성연습곡	○	횡격막
2	(주)교학	·선&앞은 그림○	·복식호흡 그림○ ·횡격막	·정확한 발음설명	·간략한 발성 ·발성연습곡 1개	×	횡격막
3	금성	·선그림○	·간략한 설명	×	·발성연습곡 5개 (기본,레가토, 스타카토,고음,도약)	×	×
4	태성	·선그림○	·그림○ ·호흡법	·아에이오우 입모양그림○	·그림○ 발성설명 ·발성연습곡1개 (니,네,나,노,누)	×	×
5	동아	·선&앞은 그림○	·호흡연습 ·횡격막	×	·발성연습곡 3개 (Mi, Ru,미-루-아)	○	횡격막
6	미래	·선그림○	·그림○ ·바른호흡	×	×	×	×
7	박영	·선그림○	·복식호흡	×	·발성연습곡 3개 (마, 모, 미)	×	×
8	비상	·그림× 설명만	·바른호흡	·입모양그림○	×	×	×
9	성안	×	×	·입모양그림○	·발성연습곡 2개 (이에아오우, 이)	×	×
10	세광	·선&앞은 그림○	·그림○ ·복식호흡	·입모양그림○	·그림○ 발성설명 ·발성연습곡 3개 (레가토,스타카토,크레 센도와데크레센도)	×	×
11	아침	·선&앞은 그림○	·간략한 호흡 ·횡격막	×	×	×	횡격막

	교과서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	횡격막의 용어 사용
12	와이	·선그림○	·그림○ ·복식호흡	·입모양그림○	×	○	가로막
13	음생	·선그림○	·그림○ ·복식호흡	×	·그림○ 발성설명 ·발성연습곡 4개 (긴장을푸는, 좋은울림, 아랫배활용, 가락연습곡)	○	횡격막
14	중앙	·선&얇은 그림○	·그림○ ·복식호흡	·정확한 발음설명	×	○	횡격막
15	지학	·선&얇은 그림○	·그림○ ·복식호흡	·입모양그림○	·발성설명 ·발성연습곡 6개 (아에이오우, 레가토의 순차&도약,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스타카토, 마르카토)	○	횡격막
16	천재교과	·선&얇은 그림○	·복식호흡	×	·간략한 발성설명	×	×
17	천재교육	·선&얇은 그림○	·바른호흡	×	×	×	×
18	현대	·선&얇은 그림○	·그림○ ·복식호흡	×	·그림○ 발성설명 ·발성연습곡 3개 (레가토,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스타카토)	×	횡격막

교학=교학사, (주)교학=(주)교학사, 금성=(주)금성출판사, 태성=도서출판태성, 동아=(주)동아출판, 미래=(주)미래엔, 박영=(주)박영사, 비상=(주)비상교육, 성안=성안당, 세광=세광음악출판사, 아침=(주)아침나라, 와이=(주)와이비엠, 음생=(주)음악과생활, 중앙=(주)중앙교육, 지학=(주)지학사, 천재교과=(주)천재교과사, 천재교육=(주)천재교육, 현대=현대음악

1) 바른 자세

현행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의 표현 영역 중 가창지도의 바른 자세를 수록한 내용은 다양하였다. 교과서 내의 그림의 제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선 그림과 얇은 그림을 동시에 바른 자세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선 그

림과 바른 자세의 설명만 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바른 자세에 대한 그림의 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졌다.

중등 음악 교과서 18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금성출판사 외 8개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는데, 선 그림과 앉은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선, 어깨, 가슴, 척추와 목, 등, 양손, 양발, 엉덩이 등의 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교실 수업에서 앉은 자세와 선 자세에서 각각의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림을 통한 교사의 설명과 학생의 이해가 용이하다.

교과서에 나타난 선 자세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0 참조). 첫째, 시선은 정면보다 조금 위쪽을 본다. 둘째, 입을 자연스럽게 벌린다. 셋째, 턱의 힘을 뺀다. 넷째, 어깨의 힘을 뺀다. 다섯째, 가슴을 편다. 여섯째, 팔은 자연스럽게 내린다. 일곱째, 양발을 조금 벌려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다.



[그림 10] 바른 선 자세와 앉은 자세(최은식 외, 2013, p. 16)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앉은 자세의 수록 내용이다(그림 10 참조). 첫째, 상체

가 의자와 수직이 되도록 한다. 둘째, 척추와 목은 머리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셋째, 양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놓거나 악보를 잡는다. 넷째, 엉덩이는 의자 뒤쪽에 붙인다.

두 번째로 많이 수록된 태성 외 6종의 교과서에서는 선 그림을 제시하여 시선의 처리, 얼굴 표정 처리, 턱, 입, 어깨와 목, 가슴, 척추, 몸통, 무릎, 팔, 양발의 위치 등의 신체 부위별로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바른 자세에 대한 그림이 없고 간략한 설명만 있었고, 성안당 교과서는 바른 자세에 대한 설명이 없다.

2)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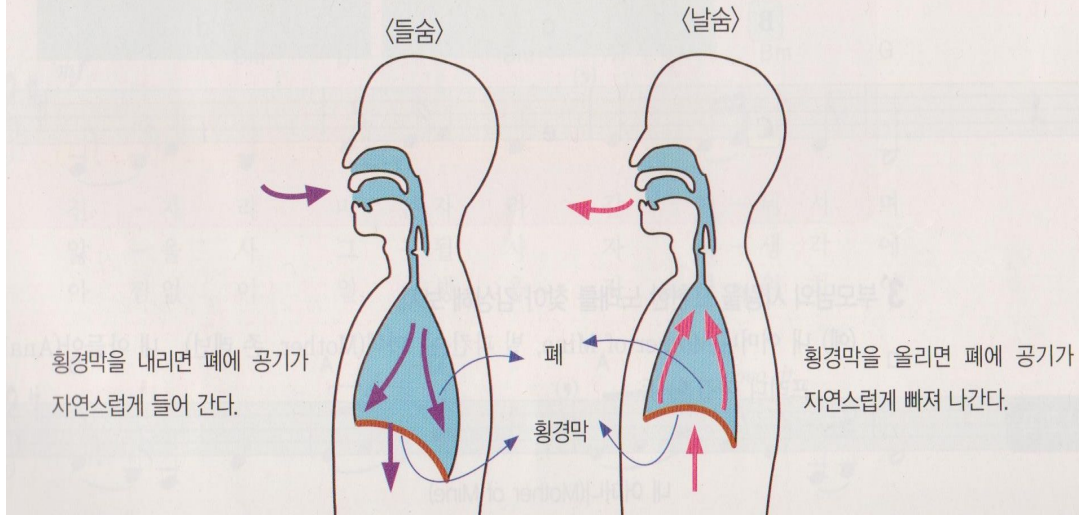
가창에서 중요한 호흡에 관련해서는 교과서의 수록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상체의 그림을 제시하며 호흡 설명을 하는 경우, 그림의 제시가 없이 호흡만을 설명한 경우, 그리고 호흡에 대한 설명이 없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학사 외 8종의 교과서에서 상체 그림을 제시하여 호흡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횡격막의 위치를 그림에서 보여 주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의 횡격막 위치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림의 설명은 학생들이 호흡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즉 흉식 호흡 대신에 횡격막을 이용한 복식 호흡은 가창 지도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그림 11 참조).

둘째, 상체 그림 제시가 없는 금성출판사 외 7종의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교과서의 경우보다 더 간략하게 호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교과서 중에는 복식 호흡 대신에 좋은 호흡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고, 횡격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교과서도 있다. 복식 호흡과 횡격막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여 좋은 호흡으로 노래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호흡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올바른 발성을 위해서는 호흡 지도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횡경막을 움직여 소리를 내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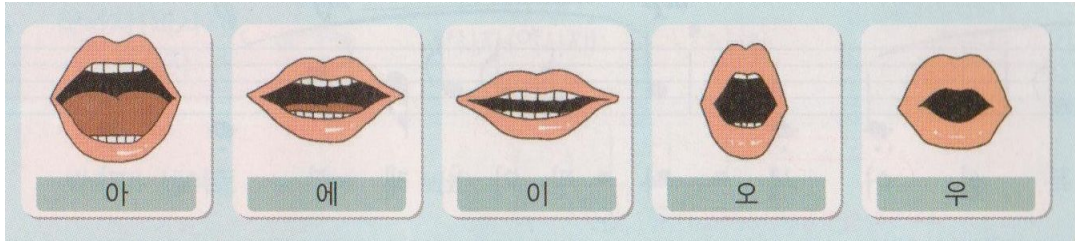
[그림 11] 호흡시의 횡격막의 위치(양종모 외, 2013, p. 16)

3) 정확한 발음

가창 표현에서 정확한 발음에 대한 것은 세 종류의 교과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확한 발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10종의 교과서, 둘째, ‘아에이오우’ 모음의 입모양 그림제시로 설명하고 있는 6종의 교과서, 셋째, 입모양 제시 없이 설명으로만 나타낸 2종의 교과서이다.

첫째, 정확한 발음은 바른 자세, 호흡과 함께 중학교 성취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출판 외 9종의 교과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록 내용이 없다.

둘째, 비상교육 외 5종의 교과서에서만 입모양 그림을 제시하여 정확한 발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입모양의 그림들은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발음 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다. 정확한 발음을 지도할 때 아래와 같은 ‘아에이오우’의 입모양 그림을 제시하여 보여주고 부연 설명하면 더욱 효과적인 발음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아에이오우’의 바른 입모양(정길선 외, 2013, p.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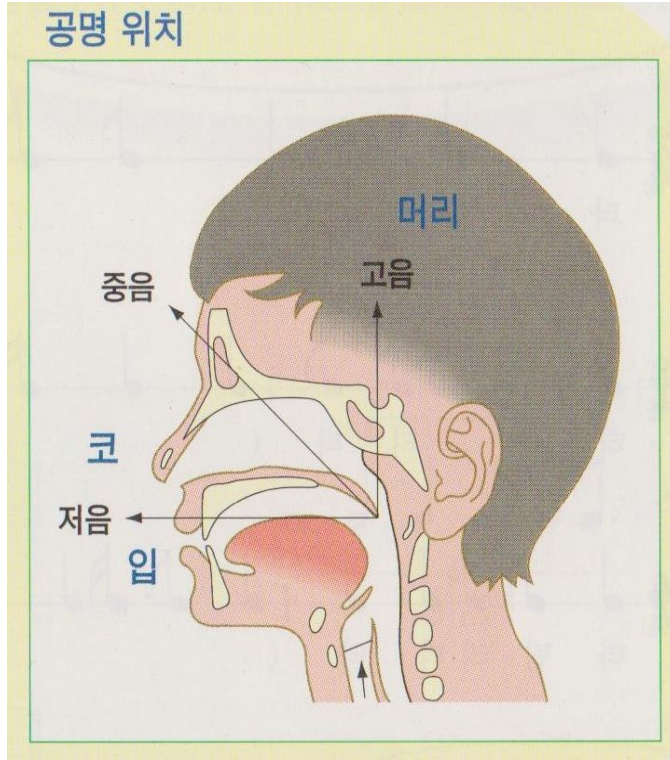
셋째, 중앙교육과 (주)교학사의 2종의 교과서에서 입모양 제시 없이 말로만 설명하고 있다. ‘자음은 뚜렷하고 짧게 발음하고, 모음은 되도록 길게 발음하고, 받침은 모음의 끝에 짧게 붙이며, 입천장을 넓고 둥글게 벌려 소리가 입속에서 울려 나오게 한다.’ 등의 비교적 정확한 발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태성 교과서에는 호흡을 위하여 하품 하듯이 입을 벌리고, 모음은 길게 발음하고, 자음은 짧게 발음한다는 것과 자음 받침이 있을 때는 모음이 끝나는 순간에 붙이는 등의 부연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4) 발성

발성의 수록 내용은 네 가지 형태의 교과서로 나눌 수 있다; 발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발성 연습곡이 수록되어 있는 6종의 교과서, 발성에 관한 설명이나 발성 연습곡의 수록이 없는 6종의 교과서, 발성에 관한 설명 없이 발성 연습곡만 제시되어 있는 5종의 교과서, 마지막으로 발성에 관한 간략한 설명만 있는 1종의 교과서이다.

첫째, 세광음악출판사 외 5종의 교과서에서 발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발성 연습곡이 수록되어 있다. 발성은 주로 입속을 넓고 둥글게 벌리고, 콧속, 머리 부위의 빈 공간을 울려서 공명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 4종의 교과서에선 공명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하여 발성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공명의 위치(허화병 외, 2013, p. 13)

발성 연습곡을 수록한 3종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레가토 연습곡,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짧게 끊어서 표현하는 스타카토 연습곡,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위한 발성 연습곡을 다른 음계의 형태이지만 소개하고 있었다. 다른 교과서에서 하품을 하듯이 입천장이 들리는 느낌의 고음을 위한 연습곡, ‘랄’을 이용한 몸과 입의 긴장을 푸는 연습곡, ‘마’의 좋은 울림을 위한 연습곡, ‘아’의 아랫배 활용연습곡 등의 다양한 발성 연습 음계를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수록하고 있다.

교과서마다 다른 음계의 발성 연습곡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발성 연습곡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대표적인 기본 모음 발성 연습곡

동음으로 이뤄진 ‘아에이오우’나 ‘이에아오우’의 기본 모음 연습곡이다.

(4) 아랫배 활용 연습

스타카토를 이용한 아랫배 활용 연습곡이다.



[악보 10] 아랫배 활용 연습곡

둘째, 미래엔 외 5종의 교과서에서는 발성에 관한 설명이나 발성 연습곡의 수록이 없다.

셋째, 박영사 외 4종의 교과서에서는 발성에 관한 설명 없이 발성 연습곡만 제시되어 있다.

5) 변성기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중 12종(67%)의 교과서에서 변성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 나머지 6종(33%)의 교과서에서만 변성기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내용은 변성기가 오는 시기, 증상, 성별에 따른 성대의 변화와 건강한 목 관리 등이다. 중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성대 사용으로 큰소리로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제할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

6) 횡격막의 올바른 용어 사용

횡격막의 용어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을 살펴본 결과, 아침나라 외 5종의 교과서에서 ‘횡격막’이라고 쓰이고 있었으며, 교학사와 음악과 생활의 교과서에서 ‘횡경막’이라고 쓰고 있다. 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가로막’이라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횡격막(동의어: 가로막, 橫隔膜, diaphragm)의 사전적 정의는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으로 된 막으로 횡격막의 위쪽은 가슴, 아래쪽은 배로 구분이 되며 가로막이라고도 한다⁵⁾.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횡격막(橫膈膜/橫隔膜)은 횡격막을 장음으로 발음하도록 표기하였다. 즉 ‘횡경-’이나 ‘횡경-’으로 발음되며, 동의어는 ‘가로막’이며, 활용 정보로는 ‘횡격막만’은 ‘횡경망-’이나 ‘횡경망-’으로 쓰여진다⁶⁾.

이와 같은 정의들은 ‘가로막’이라는 용어의 뜻으로 모든 발성 문헌에서 ‘횡격막’이라고 쓰이고 있다. 가장 오래된 발성 문헌 중 하나인 리사 로마의 저서⁷⁾와 의학박사이면서 발성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한 문영일도 그의 저서⁸⁾에서 모두 ‘횡격막’이라고 쓰이고 있다.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김혜정의 발성법 강의노트(2001)와 가창(2006)의 저자 후슬러와 로드마링, 벨칸토 발성법(1993)에서 코르넬리우스도 그들의 저서에서 모두 ‘횡격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과서 편수 자료 III-기초 과학 편」(교육과학기술부, 2011, p. 263)에서는 ‘횡격막’의 동의어로는 ‘가로막’이며, 외국어로는 ‘diaphragm’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과서 편수 자료와 위의 발성 문헌들에 근거하여 ‘횡경막’이 아닌 ‘횡격막’으로 올바른 용어 사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음악 교과서 분석 결과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른 자세에서는 선 자세와 앉은 자세의 그림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신체 부위별로 올바른 자세를 설명한 9종의 교과서가 가장 효과적인 바른 자세의 지도가 될 것이다. 다른 교과서들도 이처럼 그림을 통한 설명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도

5)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index.do>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7) 리사 로마가 발성법에 대하여 저술한 ‘발성의 과학과 기술(1987)’
 8) 문영일 박사 ‘발성과 공명(1984)’, ‘올바른 발성(2000)’

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9종의 교과서에서 호흡에 관한 설명을 상체의 그림을 제시하여 호흡 시 작용하는 중요한 기관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흉식 호흡이 아닌 횡격막을 사용한 복식 호흡을 알 수 있는 그림을 통한 설명이 수록되어야 하겠다.

셋째, 정확한 발음을 위한 ‘아에이오우’ 입모양의 그림을 6종의 교과서에서 수록하여 설명하였다. 가창 표현을 위한 정확한 발음 지도는 ‘아에이오우’ 구형을 앞쪽과 목구멍의 안쪽까지 같이 덧붙여 수록함이 바람직하겠다. 모음은 되도록 길게 발음하고, 자음은 짧게 발음하고, 받침은 모음의 끝에 짧게 붙이는 설명도 더불어 필요하다.

넷째, 발성에 관한 수록은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지만 교과서별로 다양한 발성 연습곡을 수록하였다. 6종의 교과서에 발성에 대한 설명과 발성 연습곡을 수록했는데 이처럼 발성에 대한 설명은 꼭 수록되어야 할 부분이다. 2~3개 정도의 간단한 발성 연습곡의 수록이 중학생 수준에 적합할 것이다.

다섯째, 6종의 교과서에서만 변성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변성기의 중학생들의 가창지도가 어려운 만큼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리 없이 성대를 사용하여 변성기를 잘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횡격막의 용어를 사용한 8종의 교과서 중 2종에서 ‘횡경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과서 편수 자료 III-기초 과학 편」에 근거해 ‘횡격막’의 올바른 용어 사용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창지도의 중요 요소들을 학생들의 흥미를 갖고 배우고 노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진, 그림, 놀이나 게임식의 연습 등을 더 많이 개발하여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창 수업은 결국 체재곡의 가사의 느낌을 살려 감정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정서적인 함양을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가사표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학생들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가사를 표현할 때 가창 수업은 더 즐거운 시간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재곡의 선정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옛날의 수록 곡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 즉 시대에 맞지 않거나 학생들의 선호를 무시한 교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음역대를 고려한 악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곡들을 수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행을 쫓아가는 단편적인 교과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학생들이 불려서 공감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제재곡들의 수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IV. 음악교사와 전문 성악가들의 심층 면담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중학생들의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고, 음악교사와 전문 성악가들을 면담하여 가창지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층 면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대상은 G시와 J지역의 중학교 음악교사 9명과 전문 성악가 10명으로 구성 하여 실시하였다.

1. 심층 면담 대상

1) 중학교 음악교사

중학교 음악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 중 표현 영역은 그 성취 기준이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이다. 이에 따라 음악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가창 수업의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창 수업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현장 교사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음악교사의 조사 대상자는 G시와 J지역에 근무하는 총 9명으로 여교사 5명과 남교사 4명이다. 연구 참여 교사 선정은 연구자와의 접근의 용이성, 경력, 연령, 전공, 근무학교, 사용 교과서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들 교사들에게 본 면담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가창 수업의 형태와 방법을 진술하게 하였다. 면담 대상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표 3> 면담 대상 음악교사 인구통계학적 배경

교사	성별	연령	전공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학교	사용 교과서
음악교사 1	남	50	작곡	교육학 석사	20년 이상	여자중학교	(주)미래엔

교사	성별	연령	전공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학교	사용 교과서
음악교사 2	남	37	피아노	교육학 석사	5년 이하	여자중학교	태성
음악교사 3	여	47	성악	학사	20년 이상	중학교	두산 동아
음악교사 4	남	32	작곡	교육학 석사	5년 이하	중학교	(주)미래엔
음악교사 5	여	40	성악	학사	15년 이상	중학교	성안당
음악교사 6	여	40	피아노	학사	15년 이상	중학교	성안당
음악교사 7	여	60	피아노	음악석사	20년 이상	여자중학교	비상 교육
음악교사 8	남	49	성악	음악석사	20년 이상	중학교	박영사
음악교사 9	여	30	성악	교육학 석사	5년 이상	남자중학교	세광음악 출판사

2) 전문 성악가

심층 면담 대상의 전문 성악가는 전체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교수와 명예교수를 포함한 5명과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5명으로 구성하였다. 전문 성악가는 연구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대표성, 전문 지식과 능력, 참여 의도, 접근 가능성, 적정 인원수 등을 고려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과 이태리,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한 후, 대학에서 휴학들을 양성하시는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였다. 전문 성악가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4>과 같다.

<표 4> 면담 대상 전문 성악가 인구통계학적 배경

전문 성악가	성 별	연 령	최종학력	직업	교육&연주 경력
전문 성악가 1	여	67	음악석사	명예교수	30년 이상
전문 성악가 2	여	43	이태리, 프랑스 유학 연주학박사	시간강사	10년 이상
전문 성악가 3	여	42	이태리 유학 음악석사	시간강사	5년 이상
전문 성악가 4	여	35	독일 유학 최고연주자과정	시간강사	5년 이하
전문 성악가 5	여	44	미국 유학 연주학박사 수료	겸임교수	15년 이상
전문 성악가 6	남	57	연주학박사	대학교수	30년 이상
전문 성악가 7	여	66	음악석사	명예교수	30년 이상
전문 성악가 8	여	59	미국 석사, 연주학박사	대학교수	25년 이상
전문 성악가 9	남	43	음악학박사	시간강사	10년 이상
전문 성악가 10	여	62	이태리 유학 음악석사	대학교수	30년 이상

2. 심층 면담 질문지

1) 중학교 음악교사 심층 면담 질문지

현장 교사를 위한 심층 면담 질문지는 중학교 가창 영역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음악 교과서 18종의 가창 영역의 수록 내용인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 횡격막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심층

면담과 질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가창 지도법과 가창지도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파악하는 현장 실태를 분석할 수 있었다. 중학교 음악교사 면담 질문지는 <표 5>와 같다.

<표 5> 중학교 음악교사 면담 질문지

문항 구성 요소	내 용
바른 자세	1. 학생들의 바른 자세는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호흡	2. 호흡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발성	3-1. 가창 수업 시 매번 발성연습을 시키고 제재곡을 부르시나요? 3-2. 가창 수업 시 발성연습을 한 후 제재곡을 불렀을 때 더 효율적인가요? 3-3. 발성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정확한 발음	4.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변성기	5. 변성기의 학생을 위한 가창지도는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가창 영역의 만족도와 개선점의 제시	6.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교과서의 가창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나요?

2) 전문 성악가 심층 면담 질문지

전문 성악가를 위한 심층 면담 질문지는 18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 영역의 수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의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경험한 중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가창지도 방법을 살펴보았다. 전문 성악가 면담 질문지는

<표 6>와 같다.

<표 6> 전문 성악가 면담 질문지

가창 요소	내 용
바른 자세	1. 바른 자세는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호흡	2. 호흡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정확한 발음	3.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발성	4. 발성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변성기	5. 변성기 학생들의 가창지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3. 심층 면담 방법

음악 교사 집단과 전문 성악가 집단의 심층 면담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의 기간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면담 방법은 직접 인터뷰나 전화 면담 그리고 질문지법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과정을 녹취하였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전문 성악가 1인과 음악 교육 전문가 1인과 함께 검토하였다.

4. 심층 면담 결과

1) 중학교 음악교사 면담 결과

G시와 J지역 중학교에 근무하는 음악 교사의 면담 질문지는 교과서의 가창 영역 수록 내용과 지도법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바른 자세

문항 1의 ‘학생들의 바른 자세는 어떻게 지도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교사들의 응답은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첫째, 교과서만으로 지도하는 교사는 2명으로 교과서만으로 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지도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지도하는 교사는 3명으로, 이 중 2명의 교사가 교과서 내 바른 자세의 수록 내용이 없어 선생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지도하고 있었다.

셋째, 교과서와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활용하여 지도하는 교사는 3명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과서, 교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전문 발성 문헌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교사도 1명 있었다.

<표 7> 교사들의 교과서의 사용에 관한 응답 내용

응답 내용	응답수 (빈도)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지도	2 (22%)
교사의 지식에 의존한 지도	3 (33%)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지도 + 교사의 지식에 의존한 지도	3 (33%)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지도 + 교사의 지식에 의존한 지도 + 전문 발성 문헌 연구 후 지도	1 (11%)
합계	9 (100%)

바른 자세에 관한 교과서의 수록 내용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바른 자세의 수록 내용을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호흡

호흡의 교과서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1개의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호흡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복식 호흡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서 가창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호흡 지도에 관한 질문에서도 9명의 모든 교사들이 복식 호흡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 5명의 교사들이 복식 호흡을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설명하여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호흡의 작용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음악교사 1은 제재곡에서 프레이즈 연결로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음악교사 7은 스타카토로 연습시키면서 호흡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음악교사 5는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을 비교하여 두 호흡의 차이점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3) 정확한 발음

교사 1과 교사 3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입모양을 직접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입모양과 비교하게 하여 따라하게 하는 시범 형식의 발음 지도를 하고 있었다. 교사 1은 교과서에 정확한 발음에 관한 수록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서 입모양의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었다.

교사 7의 경우, 교과서에 수록된 ‘아에이오우’ 입모양은 말할 때의 입모양이기 때문에 노래할 때는 입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노래할 때의 입모양으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따라 하게 하면서 가창지도를 하고 있었다.

교사 2, 5, 6, 9의 경우 공통적으로 먼저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많고 많이 시킨 후 노래하게 하면 가창 시 학생들의 발음이 더 정확해진다고 했다.

교사 4와 8은 가사 안의 모음들을 최대한 길게 발음하게 하고 자음 받침은 끝에 짧게 붙이는 발음 지도를 하고 있었다.

(4) 발성

발성은 가창에 있어서 다양한 지도 방법과 각자에 맞는 발성법이 존재한다. 발성은 발성연습과 두성 발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면담 결과를 살펴보았다.

① 발성연습

발성연습의 효율성을 알아보려고 먼저 가창 수업 시 매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발성연습을 시키는지를 질문하였다. 9명 중 5명의 교사들이 항상 발성연습을 시킨다고 답했으며 2명의 교사들이 가창 수업 시 50% 정도의 시간을 발성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성연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2명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조).

<표 8> 교사들의 가창 수업 시 발성연습의 여부

응답 내용	응답수 (빈도)
가창 수업 시 항상 발성 연습하는 경우	5 (56%)
가창 수업 시 때때로 발성 연습하는 경우	2 (22%)
가창 수업 시 전혀 발성 연습하지 않는 경우	2 (22%)
합계	9 (100%)

교사들의 발성에 대한 효율성에서는 9명의 교사가 모두 발성을 했을 때 가창 지도가 용이하다고 하였다. 발성연습을 안하고 제재곡을 불렀을 때 학생들의 노래가 자신감도 없고 잘 되지 않지만 발성연습 후 제재곡을 불렀을 때의 훨씬 더 학생들의 가창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두성 발성

가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발성이라고 전문 성악가들은 말한다. 중학교

음악교사들의 두성발성 지도방법을 직접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들은 변성기가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때는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가성을 내게 한다. 3학년 때 가성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약간의 두성 발성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 1)

“요즘 학생들이 K-POP의 영향 때문에 가요발성에 익숙해져 있어서 두성 발성을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발성 연습을 더 시켜서 두성 발성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두성 발성을 위한 ‘목 안 열기’를 다양한 사물들을 제시하면서 상상을 통한 활동들로 학생들의 두성 발성을 지도하고 있다.” (교사 2)

“교과서에 수록된 발성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 지도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노래하기 때문에 가성으로 무리 없이 부르게 하여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교사 3)

“‘양’발음은 비강의 울림이 많이 느껴지는 발음이기 때문에 소리를 앞으로 집중하여 발음하게 하여 두성 발성을 지도한다.” (교사 4)

“두성 발성은 중학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두성 발성보다는 복식 호흡을 통한 소리 모으기를 지도하고 있다.” (교사 5)

“기식음의 ‘하’를 이용하여 점차 육성과 가성을 섞게 하여 머리 위쪽이 울리는 느낌 등으로 두성 발성을 지도하고 있다.” (교사 6)

“특히 여학생들은 선생님이 소리를 내주면서 선생님을 흉내 내게 하는 방법이 두성 발성 지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소리를 내주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소리와 학생들의 소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를 알게 하는 두성 발성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가성의 소리로 작은 소리이지만 선생님의 소리를 자꾸 들려주고 따라서 하게하면 3학년에 가서는 꽤 발전된 두성 발성의 소리를 낼 수 있다.” (교사 7)

“두성 발성은 선생님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더디고 어렵지만 꼭 필요한 가치

교육이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노래할 경우 통일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두성 발성이 꼭 필요하다. 합창을 통해 가성의 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 효과적인 두성 발성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사 8)

“성악 전공으로 두성 발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여자선생님이 남학생들에게 두성 발성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여자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서 할수 없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두성 발성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교사 9)

이와 같이 두성 발성이 교사들 집단에서는 가장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두성 발성은 동성의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서 흉내 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이 효과적인데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을,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이번 면담을 통해 나타났다. 두성 발성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교 음악 수업의 가창지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두성 발성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었다.

(5) 변성기

교사 1, 교사 6, 교사 8은 변성기 학생들의 음역대를 고려하여 여러 조로 이조하여 반주해 주면서 적절한 음역에서 성대에 무리 없이 노래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특히 이조는 곡에 변화를 주어 학생들에게 표현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니 학생들이 노래를 재미있게 부른다.” (교사 1)

“중학생들이 변성기로 인한 소리의 변화로 노래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신감 없이 노래하기 때문에 가창지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작은 소리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 5)

“변성기 때 학생들은 음정을 잘 못 잡기 때문에 무리해서 노래를 시키지 않고 감수성을 높이는 음악 감상 등으로 변성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교사 2)

교사 3, 4, 7, 9는 변성기 때 성대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지도를 하고 있었다.

(6) 횡격막의 올바른 용어 사용

교사들의 횡격막의 올바른 용어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횡격막과 횡경막 중 옳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질문 했는데, 9명의 교사 중 6명의 교사가 올바른 용어인 횡격막(67%)으로, 3명(33%)의 교사가 횡경막이라고 답했다(표 9 참조). 교사들 또한 정확한 횡격막의 용어 사용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표 9> 교사들의 올바른 횡격막 용어의 인식도

응답 내용	응답수 (빈도)
‘횡격막’	6 (67%)
‘횡경막’	3 (33%)
합계	9 (100%)

(7) 가창 영역의 만족도와 개선점

교사들의 교과서 내 가창 영역의 수록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개선점을 면담하여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표 10> 교사들의 교과서 내의 가창 수록 내용 만족도

응답 내용	응답수 (빈도)
교과서의 수록 내용에 만족함	6 (67%)

교과서의 수록 내용이 부족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함	3 (33%)
합계	9 (100%)

6명의 교사들은 가창 영역의 수록 내용이 대체적으로 중학생 수준에 적절하고 지도하기에 충분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교사 1, 2, 5는 학생들의 가창의 기본 요소들을 지도하기에 수록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하기엔 충분치가 않아 요소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수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가창 요소별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그림 자료의 삽입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 2는 또한 학생들이 가창 영역 중에서 서양음악, 국악, 대중가요의 다른 가창법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수록도 필요하다는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2) 전문 성악가 면담 결과

전문 성악가들의 면담 대상은 현재 음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연주자이거나 대학교 음악과에서 성악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음악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변성기 등의 수록 내용을 지도할 때의 효과적인 가창지도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1) 바른 자세

전문 성악가 면담을 통해 바른 자세는 가장 선행되어야 기본적인 가창 요소로서 호흡과 발성 등의 다른 요소가 성취되기 위해 꼭 바른 자세의 지도는 이뤄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바른 자세에 대한 전문 성악가들의 면담 결과는 교과서에 수록된 선 자세와 앉은 자세의 그림 제시와 설명에 상당히 일치함을 보였다.

선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선은 정면보다 조금 위쪽을 바라본다. 둘째, 가슴은 활짝 편다. 셋째, 머리는 위에서 당겨진 느낌으로 어깨와 목의 힘을 빼고 척

추를 곧바로 세운다. 넷째, 팔은 자연스럽게 내린다. 다섯째, 발은 V자로 한 발은 약간 앞으로, 다른 발은 약간 뒤로 발 넓이는 어깨보다 약간 좁게 선다.

앉은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자의 끝 쪽에 걸터앉은 것처럼 가슴을 편다. 둘째, 척추와 목은 바르게 펴서 등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셋째,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넷째, 두 발은 선 자세처럼 V자로 선다.

(2) 호흡

전문 성악가들은 호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흉식 호흡이 아닌 복식 호흡과 횡격막의 작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물을 통한 설명으로 그 작용을 이해하고 직접 몸으로 느껴서 체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4명의 성악가들이 복식 호흡을 풍선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며, 횡격막은 폐 밑에 우산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설명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누워서 배위에 책을 올리고 호흡을 해 보게 하는 것도 복식 호흡의 좋은 연습의 추천하였다. 복식 호흡은 복근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윗몸 일으키기, 활발한 보행연습 등의 복근 단련 운동을 놀이처럼 해보는 것도 권장하였다.

(3) 정확한 발음

전문 성악가들은 정확한 발음은 턱과 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발음의 규칙은 ‘모음은 최대한 길게, 자음은 짧게 발음하라’이다. 여기서 정확한 발음이란 노래를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가사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얘기한다. 정확한 발음의 기본적인 연습은 가창을 하기 전에 노랫말을 크고 과장되게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말하듯이 노래하라’는 표현을 학생들에게 많이 쓰면서 말할 때 소리가 앞에 붙여서 나아가듯이 노래도 앞에 붙이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 (전문 성악가 3)

“요즘 학생들은 앞을 잘 벌리지 않기 때문에 턱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발음이 더 안 된다. 그래서 ‘오’ 나 ‘우’ 같은 모음 발음을 더 세심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전문 성악가 7)

전문 성악가 6과 9는 정확한 발음을 먼저 선생님들이 시범으로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4) 발성

전문 성악가들은 가창 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사로 노래하기 전에 발성연습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가창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6명의 성악가들이 발성 연습을 시작할 때 처음 ‘이’ 모음을 이용한 발성을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이’는 모음 중 가장 앞에서 소리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에 소리를 모아서 낼 수 있어서 가장 먼저 하면 효과적인 모음의 발성연습곡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된 ‘이에아오우’의 발성 연습 모음은 6명(60%)의 성악가들이 추천하고 있었다(악보 11 참조).



[악보 11] ‘이에아오우’ 모음 연습곡

‘아에이오우’는 4명(40%)의 성악가들이 더 효율적인 발성 연습 모음으로 추천하고 있었다(악보 12 참조).



[악보 12] ‘아에이오우’ 모음 연습곡

다음으로, 소리를 이어서 내는 레가토를 위한 발성 연습곡들로 다음을 추천하였다(악보 13~16 참조).



[악보 13] 레가토를 위한 연습곡



[악보 14] 레가토를 위한 연습곡



[악보 15] 레가토를 위한 연습곡



[악보 16] 레가토를 위한 연습곡

스타카토를 이용한 호흡 연습곡들은 다음과 같다(악보 17~19 참조).



[악보 17] 스타카토를 이용한 호흡 연습곡



[악보 18] 스타카토를 이용한 호흡 연습곡



[악보 19] 스타카토를 이용한 호흡 연습곡

또 다른 하나의 발성 연습으로 형식적인 음계를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곡들을 모음의 발성 연습 음계로 바꾸어 부르게 하는 방법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발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두성 발성에 대한 지도는 동성의 선생님의 시범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의 소리를 모방하면서 차차 배워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두성 발성을 익힐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저명한 성악가 등의 소리를 자주 들려주면서 모방하게 하는 방법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5) 변성기

전문가 9명 모두 변성기 때는 무엇보다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역대를 고려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8은 변성기 때는 노래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꼭 노래를 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음역대를 고려하여 전조하여 반주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 5, 7은 중학생이 내는 가성의 소리라도 미약하지만 익숙하도록 훈련하여 차차 호흡과 함께 소리를 내다보면 두성 발성으로 발전해 감을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다른 전문가들은 노래를 부르게 하는 대신, 가사를 여러 번 읽게 하여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대가 민감한 변성기에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폭 넓은 음악 감상을 함께하는 것을 추천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의 가창지도 활성화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의 가창 영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창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음악 교사들과 전문 성악가들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핵심 수록 내용, 즉 바른 자세, 호흡, 발성, 정확한 발음, 변성기의 특성을 전문 발성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여 살펴보았으며,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을 위의 5개 범주와 횡격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바른 자세는 앉은 자세와 선 자세의 그림의 수록과 설명이 있는 9개의 교과서, 선 그림만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는 7개의 교과서, 바른 자세의 설명이 전혀 없는 2개의 교과서로 나눌 수 있었다. 가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른 자세의 선 그림과 앉은 그림의 수록과 설명은 수업의 주체인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호흡은 상체의 그림을 제시하여 호흡을 설명하고 있는 9개의 교과서, 상체의 그림 없이 간략하게 호흡을 설명하고 있는 8개의 교과서, 호흡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교과서 1개로 나눌 수 있었다. 중학생들의 호흡의 지도를 위하여 횡격막의 위치나 작용 등을 그림으로 제시·설명하는 복식 호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내용의 수록이 이뤄져야 하겠다.

정확한 발음은 정확한 발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10개의 교과서, ‘아에이오우’ 모음의 입모양 그림 제시로 설명하고 있는 6개의 교과서, 입모양 그림 제시 없이 설명으로만 나타낸 2개의 교과서로 나눌 수 있었다. ‘아에이오우’의 정확한 입모양과 혀의 위치의 그림을 수록하여 발음의 위치를 설명한다면 정확한 발음은 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에서 발성의 수록 내용은 네 가지 형태의 교과서로 나눌 수 있었다; 발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발성 연습곡이 수록되어 있는 6개의 교과서, 발성에 관한 설명이나 발성 연습곡의 수록이 전혀 없는 6개의 교과서, 발성에 관한 설명 없이 발

성 연습곡만 제시되어 있는 5개의 교과서, 마지막으로 발성에 관한 간략한 설명만 있는 1개의 교과서이다. 각 교과서마다 제재곡을 부르기 전에 간단한 1~2개 정도의 발성 연습곡을 수록하여 가창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성 기관의 위치의 그림 제시와 함께 기본적인 발성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변성기는 12개(67%)의 교과서에서 변성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6개(33%)의 교과서에서만 변성기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었다. 각 교과서마다 변성기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학생들이 본인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가창지도로 변성기를 잘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횡격막은 8개의 교과서에 ‘횡격막’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6개(75%)의 교과서에선 ‘횡격막’으로, 2개(25%)의 교과서에선 ‘횡경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러 전문 발성 문헌들과 「교과서 편수 자료 III-기초 과학 편, p. 293」에 권장된 ‘횡격막’의 교과서의 통일된 용어 사용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심층 면담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바른 자세는 가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자 학생들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올바른 자세의 지도를 통하여 호흡과 발성도 같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호흡은 모든 교사들이 복식 호흡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었는데, 횡격막의 위치와 작용을 설명하고 편안한 호흡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확한 발음의 지도는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모방하는 방법이 주요했다. 표면적인 정확한 발음을 위한 지도보다는 제재곡의 가사 전달을 위한 표현력을 높이고 노래의 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지도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모든 교사들이 제재곡을 부르기 이전에 발성 연습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고, 7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창 수업 시 발성 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두성 발성의 지도는 꼭 필요하지만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았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가창을 위해 간단한 발성 연습은 효과적일 것이다. 교사들은 인내심을 갖고 소리를 내어 시범을 보여주면서 소리를 따라하게 하는 등의 순서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두성 발성의 지도가 필요하겠다. 또한, 교사들은 변성기의 학생들

에게 음역대를 고려한 무리 없는 가창지도를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변성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67%는 횡격막의 올바른 용어를 알고 있었다. 올바른 횡격막의 용어 사용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33%의 교사들이 교과서의 수록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가창 요소별로 심화되고 업데이트된 그림들과 수록 내용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전문 성악가들의 면담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문 성악가들은 바른 자세가 가창 요소 등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 힘이 빠진 편안한 상태로 가슴을 활짝 열어 능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호흡은 횡격막과 근육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통해 횡격막의 위치를 설명하고 호흡 시 근육의 작용을 선생님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교사의 시범을 보고 모방하며 직접 체험으로 느끼는 가운데 차차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확한 발음은 턱과 혀의 위치를 알고, 노래 부르기 전에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면서 말로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발음의 지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확한 발음으로 가사 전달이 될 수 있다면 표현력도 커지고 가창의 흥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도가 될 것이다.

발성은 다양한 지도법이 존재하나,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훈련되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발성 연습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두성 발성은 시간과 선생님의 인내심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선생님의 지도와 시범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의 소리를 모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성 발성을 배워가게 된다고 하였다.

변성기는 무엇보다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역대를 고려한 가창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2009 개정 음악 교과서의 분석결과를 기초하여 중학생의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발성 등의 교과서의 수록 내용을 현재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는 다소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학교에서의 올바른 가창지도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되고, 진화된 그림의 제시와 심화된 설명이 필요하며, 변성기에 대한 수록도 교과서마다 충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가창 요소를 설명함에 있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고려한 현실적인 그림의 제시와 설명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교사들의 가창 지도를 위한 성악적 역량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사들을 위한 전문 성악가의 성악 레슨, 교사·학생·성악가가 함께 하는 가창 세미나, 교사들의 성악 연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도 전문 성악가에게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도를 통한 경험과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창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양수(2004). 중학교 가창 지도에 관한 연구: 변성기 학생들의 가창지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화(201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가창영역 분석연구: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예려(2009). 중학교 학생들의 가창발성지도 연구: 중학교 1학년 변성기 학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향정(2006). 가창 능력과 정의적 목표 성취의 상관 및 예측력 연구. **중등교육연구**, 54(3), 223-243.
- 김혜정(2001). **성악박사 김혜정의 발성법 강의노트**. 서울: 작은 우리.
- 고선미(2001). 변성기의 생리학적 분석과 이에 따른 가창지도방안 연구. **이화음악논집**, 5, 5-34.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과서 편수 자료 III-기초 과학 편.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안정현, 현경실(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등학교 음악과 교과서의 학교급간 연계성 연구: 가창영역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4(2), 99-117
- 문영일(1984). **발성과 공명**. 서울: 청우.
- 문영일(2000). **올바른 발성**. 서울: 청우.
- 박주은(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분석: ‘노래 부르기’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주량(2004). 중학교 가창지도 실태 대안연구: 변성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경희(1993). **중학교 음악과 수업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I): 가창 및 기악중심 교수·학습지도 모형 및 수업안 개발** (연구보고 RR 93-2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오선주(2011). 중학교 가창 중심 수업모형 연구: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지연(2013). 협동학습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 가창지도 방안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혜정(1995).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8종) 분석: 가창학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최명희(2002). 중학교 가창지도의 효율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정의(2010).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곡 편성의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함희주(1994). 가창 학습 지도를 위한 내용 및 방법. **음악과 민족**, 8, 275-300.

황세진(2008). **성악 비법 24**. 서울: 예술

Reid, C. L.(1993). **벨칸토발성법(Principles and Pratices)**. 대한음악저작연구회 역. 서울: 삼호뮤직.

Roma, Lisa(1987). **발성의 과학과 기법(The Science and Art of Singing)**. 오현명 역. 서울: 음악예술사.

Knoll, R. C.(1989). **성악 기법 원리(Vocal Knollism)**. 김경임 역. 서울: 청우.

중학교 음악 교과서

강민선 외 4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교학사.

경기도교육청(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중앙교육.

김미숙 외 3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와이비엠.

김용희 외 6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금성출판사.

민은기 외 3인(2015). 중학교 음악(3판). 서울: (주)천재교육.

박정자 외 3인(2014). 중학교 음악. 서울: (주)아침나라.

양종모 외 4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음악과생활.

윤명원 외 4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천재교과서.

이홍수 외 5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교학사.

장기범 외 4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미래엔.

장보운 외 2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현대음악.

정길선 외 5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지학사.

정옥희 외 5인(2013). 중학교 음악. 경기도: 성안당.

주광식 외 3인(2015). 중학교 음악(3판). 서울: (주)박영사.

- 주대창 외 3인(2014). 중학교 음악. 서울: 태성.
최은식 외 6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동아출판(주).
허화병 외 3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홍미희 외 5인(2013). 중학교 음악. 서울: (주)비상교육.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015년 8월 10일 검색함.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index.do>, 2015년 8월 10일 검색함.
-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http://terms.naver.com/>, 2015년 8월 10일 검색함.